

한가위 성묘 예배

(이 예배는 집안의 어른이 인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자녀 중에서 인도해도 됩니다.)

부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인 도 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사 40:6~8, 새번역)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앞서 가신 선조들을 기억하며 다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288장(통 204) 다 같 이

1.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공동기도 다 같 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 함께 한 소중한 기억들이 저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움이 클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의 가르침이 저희의 삶 속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시간동안 ()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이 저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이 가족 간의 정이 더욱 깊어지게 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주님 앞에 서고, 다시 ()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과 () 앞에서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데살로니가전서 4:13~14() 인 도 자

¹³ 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¹⁴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썸 소망이 있는 슬픔 인 도 자

맞아 우리는 사랑하는 ()님을 기억하며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경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에도 언젠가는 이별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단순히 지나간 시간을 추억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은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의 슬픔에는 세상의 슬픔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워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바라보지만 죽음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소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바울은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죽음이 이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새로운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받은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며 살아갑니다. 남아 있는 가족들이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사랑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 송 384장(통 434) 다 같 이

1.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공홀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같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3.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의기도 다 같 이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가족들이 즐겨 부르던 것이나, 잘 아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회 홈페이지 (www.yedarm.or.kr)에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실 > 가정예배)